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 조러모스크바선언



6.15주간 편집부

# 모스크바선언

## 6.15주간 편집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연방대통령이신 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며 2001년 7월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4일과 5일 공식 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러 친선관계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의의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륜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정 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19일에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서명한 조-러 공동선언과 2000년 2월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문제들을 보도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 연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 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공식관계 설정이 적극화되고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같은 나라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러시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대통령 푸틴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러시아연방대통령 푸틴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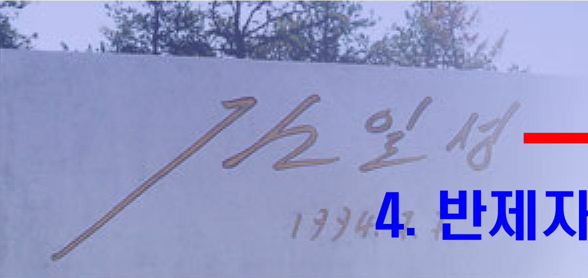


#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발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

주체69(1980)년 10월



# 4.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

동지들!

총결기간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세계의 면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전진하는 과정에 쁠럭불가담운동이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적 범위를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공인된 활동 원칙을 가진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 정세발전과 국제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반제자주력량이 장성 강화된 반면에 제국주의 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세계적 판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령력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종국적으로 청산되여 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연료위기, 원료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은 생산의 침체와 감퇴, 통화 팽창과 실업의 증대로 하여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본주의 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전횡을 일삼던 미제국주의자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도 독점권과 지휘권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총결기간 국제정세발전의 전 과정은 우리 시대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 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과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 추세입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대외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 세력들을 반대하고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 로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의하여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 인민들 속에 ≪주체의 조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높이 칭송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총결기간 66개의 나라와 새로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 운동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전례없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어디서나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주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력사의 흐름과 함께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지배 세력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는 반면에 지배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침략과 쟁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역량, 반제자주세력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되는 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들은 민족적 독립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정의의 해방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공공연히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배세력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켜 자기들의 지배권 안에 끌어넣기 위한 쟁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 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하여 교묘한 암투와 파렴치한 싸움을 치렬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 보호≫요, ≪인권 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 요충지들에 침략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 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 있으며 ≪협조≫와 ≪보호≫의 간판 밑에 이 지역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 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렬강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렬강들의 책동에 의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련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국제긴장 상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와 책동으로 말미암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며 주요자원지대와 군사 전략적 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한 지배세력들의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새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애호적인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평화롭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군사쁠럭은 랭전 정책의 산물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항시적인 요인입니다. 군사쁠럭들은 지구 위에 생겨난 첫날부터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을 다그쳐 왔습니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침략 위협≫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군사쁠럭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쁠럭과 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군사쁠럭들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 국제 긴장상태는 계속 격화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인류를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결코 군사쁠럭이나 렬강들의 이른바 ≪세력 균형≫에 의하여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오직 지구우에서 모든 군사쁠럭들, 침략과 전쟁 수단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 비로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군사쁠럭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군사쁠럭이 해체되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군사쁠럭도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군사 기지와 군대를 두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령토 안정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 시대의 추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침략군대를 무조건 철수할 것을 주장합니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 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교란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 문제를 쌍방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위업에 맞게 당사자ㅇ들이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 문제에 외부세력이 끼여들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면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신흥세력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의 분쟁문제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공정한 립장에 서서 분쟁문제를 쌍방의 리익에 맞게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새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세계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당은 팔레스티나와 중근동, 남부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자주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로동당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

현 정세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로 하여금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평화애호인민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렬강들의 어떠한 침략과 전쟁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모든 외국 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 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제 자주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세력들이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 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떠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대외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하며 어떠한 지배세력에도 아부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남의 대리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립장을 지켜야 합니다.

반제자주력량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립장을 지켜야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 대오에 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침략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도 없고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침략 수법입니다. 세계혁명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 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하여 반제적 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 립장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 시기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발대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 세력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 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며,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 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그 어떤 쁠럭에 추종하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 안에 분렬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성원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이며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 안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 나라에 특권적 지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절대로 쁠럭불가담운동 안에서 특권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 사이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분쟁 문제를 군사적 충돌에로 이끌어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 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지배 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때 참으로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강대국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 주는 불공평한 질서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정한 금융통화제도를 세우며 온갖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경제관계를 개편함으로써 국제적 착취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특히 국내자원과 경제명맥에 대한 영구주권을 지키며 원료는 눅은 값으로 팔고 공업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불공평한 무역관계와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세계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하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을 곤경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곤경에 빠져 다른 출로가 없을 때 그들은 싫든 좋든 신흥 세력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응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과 함께 국제정치관계 분야에서도 렬강들의 특권과 전횡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만이 특권을 행사하도록 되여 있는 질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질서도 오늘의 새로운 정세와 국제력량 관계에 맞게 개편되고 재조정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끝장내고 불합리한 모든 국제기구들을 세계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평화와 진보의 기구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 시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 데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의견상이로 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혁명에서 마땅히 놀아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더는 확대되지 말아야하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은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단결을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절대로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분렬을 조장하고 단결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단결에 리롭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로선입니다. 우리는 대외 활동을 적극 벌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외부세력이 우리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할 것이며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확고히 지키며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래왕과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문화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주체 90(2001)년 7월24일

이타르－타스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러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러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이 러시아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조러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호상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러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조러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러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 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 속에서는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서로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러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사이,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러시아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면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 조러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 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사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맺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 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그로 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사일강령은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 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사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 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 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 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 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 둔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러시아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러시아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조로공동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초청에의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웨.웨.뿌찐각하가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조인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호상신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고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념원을 시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들에서 매개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로씨야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여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다른 일방의 자주권, 독립, 령토완정을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동이나 조치,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확인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모든 유관국들이 이를 지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로씨야는 이와 관련한 북남 조선사람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을 가일층 강화하고 갱신하며 세계문제들에서 그의 중심적역할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힘의 사용 또는 힘의 사용위협이 국제관계체계의 근본에 도전하는 허용될수 없는 행동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천년기수뇌자회의와 총회가 성과적으로 그리고 결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원국들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것을 호소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매개 국가가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인도주의 간섭≫ 등의 미명하에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지지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전략적 및 지역적안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한다.

전략적안정의 초석이며 전략공격무기를 가일층 축감하기 위한 기초인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유지강화하면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2가 조속히 효력을 발생하여 완전히 리행되도록 하며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이 하루빨리 체결되도록 하는것은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관련한 로씨야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현 국제적현실에 대한 분석결과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수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삼는것이 완전히 무근거하다는것을 확증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다는것을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쁠럭형의 폐쇄적인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는것이 지역적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할수 있다고 간주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와 분립주의, 종교극단주의 그리고 다국적범죄활동이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전반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확신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쌍방은 민용항공과 해상항행의 안전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행위들과 마약, 무기, 문화적 및 력사적재부들의 비법적인 거래를 포함한 조직적범죄 및 테로와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21세기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세기로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권국가들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고한 경제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협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선린, 안정과 평등한 국제적협조의 지대로 되는데 리해관계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변함 없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아세안지역연단이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연단의 사업에 응당한 기여를 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쌍무적인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적련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그에 유리한 법적, 재정적 및 경제적조건을 조성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들과 규범들에 부합되게 경제분야의 협정들을 체결한다.

금속, 동력, 운수, 림업, 원유, 가스공업,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조계획의 작성사업을 적극화할데 대하여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조선측과 로씨야측 위원장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공동으로 건설한 기업소들을 개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로 하였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두 나라의 립법기관들, 국가정권기관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사이의 련계를 심화시키며 안전과 국방, 과학과 교육, 문화와 보건, 사회보장, 법률, 환경보호, 관광, 체육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

2000년 7월 1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웨.뿌 찐

#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씨야련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 웨.웨.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2001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고 6일과 7일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으며 7월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로씨야에 체류하시였다.

웨.웨.뿌찐대통령은 **김정일**령도자를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으며 로씨야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웨.웨.뿌찐대통령과 두차례의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회담을 하시였으며 대통령전권대표들과 주장관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지도일군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서로의 성과와 경험이 통보되고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국제정세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두 나라의 령도자들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조로친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조인된 조로공동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웨.뿌찐대통령은 고대하던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새 세기의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의 호상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되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특히 조선반도

북남과 로씨야, 유럽을 련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과 로씨야철도련결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훌륭한 결실을 보았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새 세기에 쌍방의 공동노력으로 세계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웨.뿌찐대통령은 모스크바체류를 끝내시는 **김정일**령도자와 또다시 비공식상봉을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번 웨.웨.뿌찐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상봉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시고 6일과 7일 영웅도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서북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웨.웨.체르께쏘브,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장 웨.아.야꼬블레브, 레닌그라드군관구 사령관 웨.에쓰.보브리쉐브, 부시장 겸 대외련계위원회 위원장 게.이.뜨까체브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일군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웨.아.야꼬블레브시장을 비롯한 시의 지도일군들을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고 시장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문기간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 있는 삐스까료브묘지의 쟈어머니-조국갸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에르미따쥬박물관과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를 비롯한 력사유적들, 레닌그라드금속공장과 끼로브공장 등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랜 력사와 문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참관하시고 로씨야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훌륭히 고수하고 빛내이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마리인스끼극장에서 발레극 쟈씰피다갸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공식방문과 싼크뜨-뻬쩨르부르그비공식방문을 위하여 오가시는 길에 로씨야의 여러 지방들에 체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의 전 령토를 통과하시는 전 기간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베.뿔리꼽스끼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대통령행정부와 외무성의 지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로 가시던 길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로씨야의 중요공업도시의 하나인 옴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역에서 씨비리련방구주재 대통령 전권대표 엘.웨.드라첩스끼, 옴스크주행정장관 엘.까.뽈레쟈예브, 옴스크주 립법회의 의장 웨.아.와르납스끼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옴스크주행정장관을 위시한 주와 시의 지도일군들의 동행하에 땅크를 비롯한 현대적인 뜨락또르를 생산하는 옴스크운수기계제작공장과 농업종합체 ≪옴스끼 베꼰≫, 뿌슈낀명칭 옴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시였으며 주행정장관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고 주예술인들이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11일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1984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모시였던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노보씨비르스크시민들은 각별한 친근감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씨비리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엘.웨.드라첩스끼,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아.똘로꼰스끼, 주대의원의회 의장 웨.웨.레오노브, 노보씨비르스크시장 웨.에프.고로제쯔끼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있는 로씨야과학원 씨비리분원,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련합체, 씨비리국립철도종합대학을 참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많은 전투기들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금은 여러가지 최신식비행기들을 설계제작하고 있는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련합체를 돌아 보신 다음 비행시위를 관람하시고 비행시위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만나시여 축하해 주시였다.

이날 저녁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아.똘로꼰스끼는 **김정일**령도자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8월 15일 광복 56돐을 맞으며 뿌찐대통령은 로씨야련방에 체류중인 **김정일**령도자께 축전을 보내여 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7일 원동련방구의 소재지 하바롭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하바롭스크변강과 시의 지도일군들, 하바롭스크시민들은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고 귀국하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이께서는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다음 향토박물관과 로병회관, 어린이식품종합공장, 백화점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변강의 지도일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무르강을 유람하시면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로씨야 체류기간 전 쏘련원수 데.떼.야조브, 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웨.웨.크류츠꼬브,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제.우말라또바,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웨.웨.까르뽀브를 비롯한 개별인사들이 **김정일**령도자를 찾아 뵙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으며 장군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과 체류는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관심과 환대,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국경을 넘으면서 로씨야련방 웨.웨.뿌찐대통령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여 전문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진행하신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전통적인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로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 로씨야방문의 나날에 있은 일화

## 시장의 탄복

(평양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수십년만에 싼크뜨-뻬쩨르부르그를 다시 방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 있는 삐스까료브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를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방문록에 ≪우리는 레닌그라드의 비극적인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일** 2001.8.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레닌그라드방위자들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히틀러파쑈군대의 약 900일간에 걸치는 봉쇄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요람을 지켜 낸 영웅의 도시 싼크뜨-뻬쩨르부르그 시민들이 6년간의 피어린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시여 사회주의와 인류의 자주위업을 결사수호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달랐다.

더우기 그들을 탄복시킨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 진다고 하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인민의 투쟁력사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에르미따쥬박물관,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를 비롯한 력사유적들도 돌아 보시면서 로씨야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세계력사에 대한 해박한 일가견도 피력하시였다.그리하여 동행한 로씨야의 정계인사들은 물론 ≪미국의 소리방송≫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탄성을 올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면에 박식하시며 대외활동에 능하신것으로 하여 시의 가시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시였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이 도시의 시장 울라지미르 야꼬블레브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야꼬블레브는 **김정일**동지를 매우 문명하고 리지적이시며 오늘의 정세를 환히 통찰하고 계시는 분으로 칭송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생활과 력사, 호상관계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와 나누시였다고 말하였다.

통신은 또한 모스크바로부터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동행하였던 전 쏘련원수 데.떼.야조브도 ≪**김정일**위원장을 정치의 대가이시라고만 하는것은 아마 부족한 표현일것이다.그이는 매우 박식하고 통찰력 있는 국가지도자이시다.≫라고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 레닌의 령전에 드린 경의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10월혁명의 수령인 위대한 레닌의 묘가 안치되여 있는 붉은 광장은 크레믈리 북동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8월 4일 레닌묘를 방문하시였다.

레닌묘, 크레믈리의 상공에서 붉은기가 내리워 진 그날부터 레닌묘의 운명을 둘러 싸고 얼마나 많은 론쟁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수난에 찬 순간들이 붉은 광장에 흘렀던가.

그러나 이날 쏘련붕괴후 처음으로 이곳에 명예위병대가 정렬되고 절세의 사회주의수호영웅 **김정일**령도자의 존함이 모셔 진 화환이 진정되였다.

숭엄한 력사의 한 순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레닌묘방문소식이 전해 지자 세계진보적인류는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로씨야의 국영텔레비죤방송인 엔떼웨는 위대한 장군님의 레닌묘방문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의 위대한 수령의 묘를 찾으시고 경의를 표시하신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레닌묘방문은 혁명선배에 대한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그이께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신 레닌묘방문은 세계를 들썩하게 하였고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제.우말라또바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신것은 로씨야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레닌묘를 방문하심으로써 레닌묘의 운명을 둘러 싼 오랜 론쟁에 종지부를 찍으시였다. 이제는 누구도 붉은 광장에서 레닌의 시신을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실 때 명예위병대가 동원된것은 쏘련의 붕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 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신 사실에서 로씨야사람들은 그이는 신념이 투철한 정치가이시며 언제나 자신의 립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더욱 잘 알게 되였다.

≪빠뜨리오뜨≫ 2001년 제34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김정일**동지는 20세기의 위대한 혁명가이며 국가정치활동가였던 레닌의 시신이 안치되여 있는 묘, 그 누구도 참관한적이 없는 이 묘를 처음으로 방문한 최고위급외국손님으로 되였다.

우리 모두는 일시적이나마 레닌묘의 1호초소에 명예위병대가 다시금 서있는것을 보면서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우리들은 이에 대해 당신께 감사를 드린다.

력사를 존중하시는 **김정일**동지의 이 풍모가 응당 따라 배워야 할 산모범으로 된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총명하고 식견이 넓은 미래의 외국손님들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것이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1부주필 리뜨비노브는 ≪**김정일**동지의 레닌묘방문은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수령께서 붉은 광장에서 사회주의승리를 선언하신것으로, 세계공산주의자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가리켜 주신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뿌찐대통령과 상봉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의 상봉이 4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다.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하신 **김정일**령도자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이 크레믈리대궁전에서 따뜻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각하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뿌찐대통령사이의 회담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사이의 회담이 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창덕부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선전선동부장,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 국가계획위원회 박남기위원장, 김용삼철도상, 과학원 리광호원장, 로씨야련방주재 조선 박의춘특명전권대사와 그밖의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세를 호상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뿌찐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있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담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조로모스크바선언 조인식이 진행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로모스크바선언 조인식이 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과 함께 조인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께서는 선언문에 각각 수표하시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을 환영하여 뿌찐대통령께서 성대한 연회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을 환영하여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은 4일 저녁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김정일**위원장께서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께서 연설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연설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 모스크바체류가 끝남에 따라 뿌찐대통령과 비공식상봉

(모스크바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체류가 끝남에 따라 8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과 비공식상봉을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문기간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께서 특별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레닌묘를 방문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4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웨.이.레닌에게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레닌묘를 돌아 보시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께서는 4일 오전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잠시 묵상하시였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무명전사들에게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화환진정이 있은 다음 로씨야군대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 **김정일**국방위원장 레닌묘방문에 대한 로씨야 각계 인사들의 반향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은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속에서 계속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우말라또바는 그이의 이번 방문은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동지는 위대하고 인자하며 선량한분이시라고 하면서 특히 그이의 미소가 매혹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이의 방문이 두 나라 관계발전에 력사적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신것은 로씨야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심으로써 레닌묘의 운명을 둘러 싼 오랜 론쟁에 종지부를 찍으시였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붉은광장에서 레닌의 시신을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실 때 명예위병대들이 동원된것은 쏘련붕괴후 처음으로 되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 하고 있다.

로씨야사람들은 **김정일**동지께서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이 사실을 놓고 그이는 신념이 투철하신 정치가이시며 언제나 자신의 립장을 끝까지 관철하시는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더욱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고 있다.

힘떽크회사 사장 이고리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번에 레닌묘를 방문하심으로써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던 ≪민주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신 그이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 ≪빠뜨리오뜨≫ 제1부주필 리뜨비노브는 장군님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신것은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수령께서 붉은광장에서 사회주의승리를 선언하신것으로 되며 세계공산주의자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신문 ≪빠뜨리오뜨≫ 이전 정치론평원 뻬로고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김정일**동지께서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신것은 최근년간에 처음으로 있은 국가정치지도자의 화환진정이라고 평하였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다.

쩨흐노쁘레드마슈회사 사장 싸모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로씨야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그이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심으로써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제꼬스과학 및 생산상업회사 사장 바벤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에 대한 폭 넓고 다방면적인 방문을 진행하시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히 여기고 있다.

우리는 그이의 방문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경제문화적련계가 더욱 발전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산주의자동맹≫당 중앙위원회 비서 마르꼬브는 **김정일**동지의 방문은 로씨야를 자주의 길로 떠밀어 준 추동력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따르-따쓰통신사 편집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로조모스크바선언은 아주 훌륭하다.

온 세계가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선언까지 채택되여 더욱 끓어 번지고 있다.

로조모스크바선언의 의의가 대단히 크다.

이번 선언은 조선의 미싸일이 세계에서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 주었다.

# 로씨야방문을 5대륙인민들이 높이 칭송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은 세계인민들속에서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5대륙의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을 비롯한 평화애호인민들 그리고 광범한 출판보도계는 무려 5만여리에 달하는 먼길을 오가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여 반제자주와 평화위업, 조로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김정일**동지를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뿌찐대통령은 고대하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새 세기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장군님을 크레믈리에서 정중히 맞이하였으며 장군님과 세번이나 뜨겁게 포옹하였다. 그리고 연회연설에서 로씨야의 심장부인 크레믈리에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진심으로부터 환영하는바이라고 말하였으며 장군님과 여러차례 상봉 및 회담을 하였다.

그는 지난해 평양방문시 자신을 수행하였던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베.뿔리꼽스끼에게 태평양연안의 로씨야국경마을 하싼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의 전 령토를 통과하시는 전 기간 동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장군님을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체류를 끝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또다시 비공식상봉을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뿌찐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대하여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은 이례적인것이라고 평하였으며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조선담당부과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뿌찐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특별한 환대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을 목격하면서 놀라와 하고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하시여 초대국인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담력으로 정치를 펴 나가시는 세계적인 령도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계시기때문이다.

로씨야의 각계층인사들은 또한 21세기에 첫 공식외국방문으로 로씨야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례없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문하시였거나 체류하신 모스크바, 싼크뜨-뻬쩨르부르그, 노보씨비르스크, 옴스크, 하바롭스크 등에서 대통령전권대표들과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 각계층 인민들이 **김정일**동지를 국빈으로 가장 뜨겁게 맞이하였으며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였다.

전 쏘련원수 데.떼.야조브, 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웨.웨.크류츠꼬브,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제.우말라또바,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웨.웨.까르뽀브를 비롯한 개별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 뵙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으며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방문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 로씨야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대양의 평화≫국제위원회 위원장, 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 단장, ≪루가≫과학생산련합체 총사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드리였으며 신문 ≪웨쩨란≫ 책임주필, 중앙무력박물관 관장, ≪빠르뜨뇨르-1≫회사 총사장, ≪민족비행기술쎈터≫, ≪극소형도서세계≫회사 등 여러 인사들과 기관, 회사들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창작한 로씨야작곡가 겐나지 샤린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신 장군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노래 ≪평양-모스크바친선은 영원하리≫를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새 세기의 가장 의의 있는 국제사변으로 칭송하며 환영하였다.

마다가스까르독립대회당, 사회주의진보당, 자주권을 위한 전투행동당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에 대한 통보모임에서 정당당수들과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이의 방문성과를 가장 뜨거운 흠모의 정을 담아 열렬히 축하하였다.

뻬루민족회복당 위원장과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담화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특기할 방문이라고 강조하고 세계정치원로이신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가이아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 총비서와 민족대회당 지도자는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당의 이름으로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하고 오늘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김정일**각하를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세계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방문의 나날에 사회주의10월혁명의 수령인 레닌의 묘를 방문하시고 무명전사묘와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 있는 삐스까료브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21세기의 위대한 자주선언인 조로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시였다.

쏘련붕괴후 처음인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를 주도하실 분≫,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현 시대의 위대한 정치원로≫로 높이 격찬하면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이의 방문을 ≪세계의 앞날을 위한 전례 없는 방문≫, ≪미국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한 방문≫, ≪인상적인 방문, 훌륭한 결실≫이라고 평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책임주필 미하일 젬스꼬브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에서 벌리시는 대외활동모습을 보고 그이의 위대성을 세가지로 찾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김정일**동지는 공산주의도덕을 최상의 수준에서 체현하신 분이시라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먼길을 오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로씨야땅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그이의 업적을 력사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김정일**동지는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시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수령이시라는것이다.

8월 4일은 가장 열렬한 공산주의자,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은 오직 조선의 **김정일**동지밖에 없다는것을 세계가 다시금 인식한 날이라고 볼수 있다.

력사의 온갖 반동들에 의해 치욕을 당하던 레닌묘가 구세주를 만난 날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에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나라들이 있었고 사회주의정당들도 많았지만 로씨야에 온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레닌묘를 방문하고 화환을 진정하지 않았다.

**김정일**동지의 레닌묘방문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준 대용단이였고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분을 따를 때 사회주의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해준 사변이였다.

셋째로,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외교지략을 지니고 계시는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모스크바에 오시여 뿌찐대통령과 마주앉으신 단 몇시간만에 로조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되였다.

그리하여 훼방분자들의 책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로씨야신문 ≪글라스노스찌≫ 책임주필 유리 이쥬모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을 세계기록집에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직전에 로씨야에 훈시질을 하고 방문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꾀하였지만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으로 하여 체면만 손상 당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원칙성과 능란한 외교전략, 무비의 담력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라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서기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자주의 원칙에서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시였을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을 가일층 촉진시키시였다, 우리는 이번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의 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를 주도하실 유일한 향도자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우간다 물, 토지 및 환경성 국무상은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그이의 위대성과 높은 국제적권위, 그이의 자주정치의 생활력을 실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이번 로씨야방문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인 사변이다.

그이께서는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과 로씨야련방공식방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밝히시고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세계제패야망에 된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은 그이께서 하싼에 도착하신 때부터 세계정치계와 출판보도계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21세기의 국제적인 사변으로 공인되였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중국 신화통신,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 일본 교도통신, 미국 에이피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프랑스 에이에프피통신, 리비아 쟈나통신, 오스트리아 아파통신을 비롯한 세계 5대륙의 수많은 통신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특별소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세계 150여개 나라의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방문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국영텔레비죤방송인 엔떼웨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텔레비죤방송들, 중국중앙텔레비죤방송, 캄보쟈국가텔레비죤방송, 일본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 리비아텔레비죤방송, 이란중앙텔레비죤방송, 마다가스까르의 떼베엠, 마떼베, 에르떼아중앙텔레비죤방송들, 로므니아텔레비죤방송, 프랑스의 제1, 제3텔레비죤방송 등 세계의 수많은 국가 및 지역텔레비죤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시는 장면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는 장면, 뿌찐대통령과 회담하시는 장면, 조로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는 장면,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화환을 진정하시는 장면,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쎈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를 참관하시는 장면 등을 특별방영하였다.

체스꼬 쁘라마텔레비죤방송은 일요일 하루동안에만도 시청률이 가장 높은 9시, 12시, 21시에 로씨야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과 함께 그이의 방문소식을 반복보도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신문들도 지면을 아끼지 않고 ≪2001년의 제1국제사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사변≫, ≪온 세계를 들었다 놓은 국제사변≫ 등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소식을 대서특집하였다.

특히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방문소식을 관례를 벗어 나 대대적으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기간 이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1,000여회에 걸쳐 그이의 방문소식을 보도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방문소식보도회수에 비해 7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브뜨라≫, ≪몰니야≫, ≪빠뜨리오뜨≫, ≪쁘라우다≫, ≪뜨루드≫, ≪쏘베쯔까야 로씨야≫,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를 비롯한 이 나라 신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에 대한 사진을 모시고 그이의 이번 방문은 로조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캄보쟈의 ≪화상일보≫, 말레이시아신문 ≪우뚜산 말레이시아≫, 인디아신문 ≪힌두≫,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이란신문 ≪테헤란 타임스≫, 리비아신문 ≪앗 샴쓰≫, 에짚트신문 ≪알 아흐람≫, 탄자니아신문 ≪데일리 뉴스≫, 로므니아신문 ≪나인 오클로크≫, 스웨리예신문 ≪다겐스 니헤테르≫, 체스꼬신문 ≪쁘라보≫, 꾸바신문 ≪후벤뚜드 레벨데≫, 뻬루신문 ≪리베라씨온≫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신문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세계에 평화를 선언하시였다≫, ≪조로친선관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변≫, ≪세계평화와 국제적안전보장에 백방으로 기여한 력사적방문≫ 등의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 머나먼 5만여리 장정 로씨야공식방문

### 로동신문 정론

(평양 주체 90(2001)년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신것과 관련하여 오늘호 ≪로동신문≫은 정론 ≪머나먼 5만여리 장정≫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 조국강산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민족적대환희의 열풍이 불어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 오시였다.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시며 우리 민족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머나먼 5만여리의 장정을 다녀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병사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삼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첫 공식외국방문은 세기와 력사를 드세게 진동시키고 우리 민족과 인류력사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 온 특기할 사변이였다.

태평양연안의 국경마을 하싼에서부터 서북단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5만여리에 걸쳐 머나먼 로씨야땅을 오가시며 20여일간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 굳게 이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이 잊지 못한 나날에 로씨야인민들은 높은 존경심과 친근감, 두터운 신뢰의 정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열렬히 맞이하고 성의껏 환대해 주었으며 우리 인민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

지금도 조선과 로씨야련방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상봉소식과 더불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모스크바선언에 접하던 때의 흥분이 우리에게 뜨겁게 살아 있다.

21세기 세계의 자주화강령, 평화강령과 같은 모스크바선언의 채택발표는 이 지구상에 전 인류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린 세계사적충격이였다.

유구한 국제외교사와 평화를 위한 인류투쟁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이 선언은 세계의 정치흐름을 한손에 거머쥔 력사의 조종자, 자신의 운명을 통채로 인류와 굳게 이어 놓은 위대한 정의의 심장가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희세의 정치외교적성공작이였다.

사회주의승리의 기발높이 세기의 분수령을 넘어 선 걸출한 수령으로서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력사적위인의 령전을 찾은 당당하고 고결한 례의, 레닌의 묘에 쏘련붕괴후 처음으로 정렬된 명예위병대며 절세의 사회주의수호영웅의 명의로 진정된 화환, 붉은광장에 울린 의미심장한 신념의 발자욱소리, 유명한 10월혁명의 고향에 남기신 소중한 추억과 맹세의 숨결...

실로 얼마나 숭엄한 력사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갔는가.

로씨야의 중앙우주비행조종썬터를 돌아 보실 때 거창한 경륜과 드팀 없는 확신으로 안광이 번뜩이던 그이의 모습은 그이께서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세계자주화≪함선≫의 조종간을 틀어 쥐시였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화폭이였다.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세계평화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공동의 협조를 확언한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전례없이 거듭된 상봉이 준 의미는 또 얼마나 웅변적인가.

참으로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백두령장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세계자주화흐름에 크나큰 격파를 일으키고 **김일성**조선의 명예와 위력을 뢰성마냥 지구에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것을 자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휘잡아 묻어 버리는 력사적소용돌이였다.

전설적인 영웅서사시로 빛나는 5만여리의 머나먼 장정으로 지구를 들었다 놓으시며 후세에 길이 빛날 거대하고도 풍만한 결실을 안아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사람들모두가 감격의 눈물, 기쁨의 웃음을 금치 못하며 축하의 꽃바구니와 꽃다발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른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외국방문길에서 돌아 오시는 자기의 수령을 맞으며 그렇듯 크나큰 기쁨과 열광속에 들끓는것인가.

조국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격정과 환희,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위대한 민족적긍지의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보다 존엄과 명예가 더 귀중하듯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집단인 인민에게도 자기 조국과 민족이 남만 못지 않으며 위대하다는 자부가 더없이 귀중하다.

남 다른 사회정치적안목과 감각으로 우리 공화국의 생활을 투시해 본 로씨야의 한 작곡가는 음악을 사랑하는 인민은 생활도 아름답

노동신문정론



# 높이 들자 붉은기

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도 바로 조선사람들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 깊은 주장을 력설하였다.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자기 민족의 명성이 유감없이 떨쳐 지고 자기 조국을 향해 만민의 경탄이 집중되는 사변을 체험할 때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끓이게 되는것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땅에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치고 있다.

민족의 제일 긍지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 이것은 사람들을 언제나 고상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민이 그 어떤 고난의 장벽도 주저없이 뚫고 승승장구하게 하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을 뿌리게 한다.

한 인민의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적긍지가 한껏 분출되는 계기들이 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있은 어버이수령님의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공식방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위도와 경도를 넘어 수십여일간에 걸쳐 엮어 진 6만여리의 그 로정이 세계정치사에 남긴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공식방문을 두고 그때와 같은 격정과 흥분, 민족적긍지를 다시금 체험하고 있다.

일찌기 인류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시련의 불길속을 헤치고 조국과 사회주의수호업적을 쌓은 조선의 이름으로 거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첫 공식외국방문,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적긍지는 오늘 력사상 최고의 높이에로 솟구쳐 오른것이다.

우리의 가슴에 벅차게 어려 온다.

환락과 사치에 병들고 지성과 량심이 제 갈 길 몰라 태질만 하던 세계에 운명전환의 돌풍을 일으키시며 유라시아대륙을 쿵쿵 울려 가신 거인의 발걸음소리, 새 세기 희망의 대문을 장엄한 대외진출로 활짝 열어 제끼시며 인류여, 정의와 신념의 기치 펄펄 날리며 이 길로 달음쳐 가자고 기관차의 기적소리와도 같은 심장의 호소를 터뜨리신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조선의 드센 배짱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심원한 뜻을 이따르－따쓰통신사의 질문에 주신 대답으로 엄숙하고도 명쾌하게 선언하시고 그 빛나는 실천으로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위인의 그 모습을 세계가 다 보았고 위인의 그 의지를 세계가 다 들었으며 위인의 그 풍모에 세계가 다 매혹되였다.

그이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자신과 관련한 일체 환영례식을 물리치시였지만 그이 가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위인숭배, 위인흠모의 열기가 뿜어 져 나왔다.

그 누가 시키거나 조직한것이 없건만 ≪**김정일**동지 만세≫의 웨침소리가 울려 나왔고 이전 초대국시기의 국방상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회사, 단체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축하하여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였으며 저저마다 언론의 마이크를 빌어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감정을 온넋으로 터치였다.

세계도처에서는 조로친선관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 세계평화와 국제적안전보장에 백방으로 기여한 력사적방문이라는 격찬이 그칠새없이 터져 나왔다.

수령이 위대해야 강국이다.

세계력사에는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여 치욕의 나락에서 존엄의 상상봉으로 치달아 오른 민족도 있었고 반대로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인구,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가 참다운 수령의 령도를 잃어 행복과 번영의 언덕에서 가난과 치욕의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 버린 통탄할 비극도 있었다.

이것을 직접 당해 본 유럽의 한 언론인은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조선은 정녕 대국이며 **김정일**동지는 그 대국의 수령이시고 세계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보다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의 련속이였다, 조선은 대국이다, 세계정치를 좌우지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대국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력사에는 사대와 굴종, 수치의 흔적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얼룩져 있는가.

당파싸움에 조정이 피로 물들고 자기 우월감,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잃은 봉건적쇄국의 방파제에 부딪쳐 문명의 물결이 좀처럼 스며 들지 못한 이 땅에서 국력이 쇠약해 지고 인민이 무맥해 졌다.

한 나라안에서도 이 대국, 저 대국을 승벽내기로 섬기며 서로 다른 렬강들을 등에 업고 정권탈취의 류혈극을 빚어 낸 봉건사대부들, 그 란리통에 왕국의 대신이 인질로 이국땅에 붙들려 가고 왕비가 섬오랑캐강도들에게 무참히 릉욕 당하고 처형 당하는 치욕도 들써야 했다.

조선은 땅도 작았지만 옳바른 령도자가 없어 더구나 작고 보잘것없었다.

하여 그 대명사는 ≪약소국≫이였고 그 처지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은 불우한 나라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력사적인 첫 외국공식방문은 수령의 위대함에 민족의 위대함이 따른다는 력사의 심원한 진리를 세상에 보여 준 영웅적장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조국땅에 넘치는 기쁨과 그리움의 폭발, 그것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장엄한 교향악이다.

지나온 력사에는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이 과시되는 계기들이 많았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와 통쾌한 전승광장, 경축의 불보라 터져 오른 기념일들의 열병 및 시위광장들, 나라에 덮쳐 들었던 최악의 위기를 몰아 낸 고난의 그 나날들에 높이 발휘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언제나 군민을 승리에로 부르고 세상을 감동케 했다.

수령이 인민과 조국을 떠나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계실 때야말로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발휘되고 과시되는 력사적계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계시지 않던 기간에 타올랐던 그리움의 불길, 일심단결의 불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했으며 열렬했던가.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비낀 달을 보면서도 이 땅의 천만군민은 한사람같이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였다.

장군님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들, 장군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념원들, 장군님께 기쁨 드릴 자각과 결의들을 비껴 안고 꺼질줄 모른




이 나라 집집의 불빛들이며 지샐줄 모른 이 나라 일터와 초소의 밤들, 기상수문국으로 그칠새 없이 걸려 온 로씨야날씨에 대한 문의전화들...

멀리 서북쪽 나라 하늘가를 우러르며 최고사령부에 아침인사를 삼가 드려 온 우리의 일당백초병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의 불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활 지펴 올리면서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 왔고 강성대국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동음을 더욱 기운차게 울려 왔다.

쇠돌생산의 동음높이 울린 무산의 철산봉이며 기관차수리와 더 많은 물동량운반으로 달아 오른 철도부문, 염소마리수가 부쩍 늘어난 함흥땅의 염소목장, 나날이 검푸른 독이 오른 황해남도의 새로 정리된 벌들, 수도의 닭공장현대화공사장과 3만세대 살림집지하구조물공사장에서의 혁혁한 성과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릴 심장의 인사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국방문나날을 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이자고 과학전선이 들끓었다.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끓어 오른 그리움의 용암은 한 민족의 력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20여일간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보루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 놓았고 조국강산에 거창한 창조와 전변의 격류를 낸았다.

참다운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 그 세월 제 갈래로 뿔뿔이 흩어 진 민족의 처지를 통탄만 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고난의 사선천리도 웃으며 어깨 겯고 헤쳐 넘고 승리자의 웃음도 모두가 하나같이 통쾌히 터뜨리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 자기 수령의 외국방문기간을 비상한 충성과 위훈의 나날로 엮어 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비한 나라로 불리우고 있다.

얼마전 외국의 한 신문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방문기간에 조선에서 굽이쳐 흐른 그리움의 대하에 대하여 류다른 주의를 돌려 보도한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떤 광풍도 핵무기도 무맥케 하는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였다. 사람들이여, 잊지 말자.

오늘이 이 민족적대경사, 인류의 커다란 희망과 환희에 깃든 절세의위인의 거룩한 로고를, 삼복의 무더위와 무더기비, 기나긴 려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민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을 위해 겹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으신채 대륙을 선회하시며 그처럼 헌신분투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동행했던 일군들이 너무도 무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시간차이로 인한 부담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해 못내 나무람하시면서 대폭 줄여 잡으신 짧은 시간안에 서둘러 식사를 끝내신 후 청춘의 정력에 넘쳐 활동을 계속하시였으니 그 가슴 치는 로고의 이야기를 우리 어찌 뜨겁게 새기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는 눈물의 회오리속에 다시금 외워 본다.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이따르-따쓰통신사의 질문에 그이 주신 대답, 수령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랑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신 그 말씀, 온몸을 다 태우며 인민을 사랑하시고 정의를 수호하시는 불세출의 령도자, 자주와 평화의 위대한 영웅이신 그이의 고결한 의지, 뜨거운 숨결을 크레믈리의 성벽이며 우랄의 산맥, 네바강의 물결이며 씨비리의 봇나무숲이 다 간직했으리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개선장군으로 맞이한 우리 인민의 심장은 절세의 위인을 천만년 높이 모셔 갈 숭고한 일념으로 불 타고 있다.

체험은 신념을 낸는다.

우리는 이번의 사변적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민족이 강성하고 부흥하는 길,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사는 길이 있음을 더욱 똑똑히 알았다.

선군의 기치우에 백두령장의 위대함이 있고 총대우에 **김일성**조선의 긍지가 빛을 뿌린다.

우리는 오늘의 이 가슴 벅찬 사변을 두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그처럼 힘겨웁고 숨 가쁘던 고난의 진펄속에서 영영 주저 앉아 버렸더라면, 만약 위대한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기치따라 용솟음쳐 일어나 자주적근위병으로 싸우지 못했더라면 백두령장께서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선언하신것처럼 주체의 붉은 노을 찬연히 펴져 가는 21세기의 이 아침 하늘가를 바라볼수 있었으랴.

우리자신도 미쳐 몰랐고 세계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조선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로 기어이 살아 일어나 세계적판도에서 자주와 정의의 거대한 힘을 용용히 뻗치리라는것을...

선군의 기치를 펄펄 휘날리시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구원해주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긍지를 만방에 떨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은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린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가리라.력사적인 첫 외국공식방문길에 쌓으신 백두령장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토록 빛내여 가리라는것이 오늘 이 땅의 천만군민이 피와 목숨으로 다지는 엄숙한 맹세이다.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 지구를 통채로 준대도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이 긍지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것이다.

력사는 21세기 태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계자주화를 위한 머나먼 5만여리 장정에 수 놓아 진 불멸의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리에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한없는 기쁨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새 세기의 첫 8.15광복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으로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마련된 조러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과 회담, 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친선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새 세기의 첫해 정초부터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8월의 뜨거운 폭양과 전례없는 폭우 속을 헤치시며 수만리 장정의 자욱위에 조러친선의 화원을 꽃피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인류의 탁월한 영도자의 위인상을 만민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할 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환영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겨레에게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선물로 안겨주실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1세기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철저한 반제자주적 입장에서 현시대의 정세흐름을 바로 잡아주시었습니다.

주체의 기치 드높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대한 헌신의 날과 날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에 의하여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위대한 장군님은 불패의 자주정치로 겨레와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영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며 공장과 농촌, 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던 그 길로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장군님의 인자하신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부디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우리 남녘민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라시아대륙을 누벼가시는 그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녘민중은 온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으며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위용과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를 격동시키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남민중의 역사적 숙원인 제2의 광복을 기어이 실현하여 7천만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에서 만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겨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은 찬란합니다.

겨레와 인류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실현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8월 19일
서울




# 겨레와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1일~14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먼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의 초청으로해서 러시아를 공식방문하셨어요. 방문기간 조러 두정상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상호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내용이 지난 4일에 발표된 조러공동선언으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번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통해 우리 겨레앞에 실로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어요. 그 업적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대한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진보적민중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낸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러공동선언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두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건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에 대해 러시아가 확고히 지지하며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러시아측은 조러공동선언에서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과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세계정치에 미치는 러시아의 역할과 그 위상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확인은 6.15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가 앞으로 더욱 크리라는 건 의심할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바로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우리 겨레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음으로 영도자님께서 우리 겨레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은 물론 세인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힘차게 벌일수 있게 한데 있다고 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푸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데 대해 강조하셨어요. 조러공동선언에서도 밝힌 것처럼 러시아측은 그에 이해를 표명하고 비군사적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의 한국강점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러시아가 반세기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요.
**사회자** : 그래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시어 러시아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뿐 아니라 한반도의 남과 북,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에 대해 합의한 것 역시 우리 겨레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아닐까요.
**윤정원** : 물론 그렇죠. 갈라져 살지만 이북도 우리 나라가 아




닙니까. 조러간의 협조가 강화되어 이북이 강성부흥하면 좋았지 나쁘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 남북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가 창설되면 우리 남북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이익이 연간 4억달러를 넘는다고해요. 그래서 재계는 이 수송로창설합의에 대해 모두 환영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재여건을 마련하신 것을 비롯해서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영도자님께서 우리 겨레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방문을 통해 세계 인류앞에 어떤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는지 그에 대해 애기해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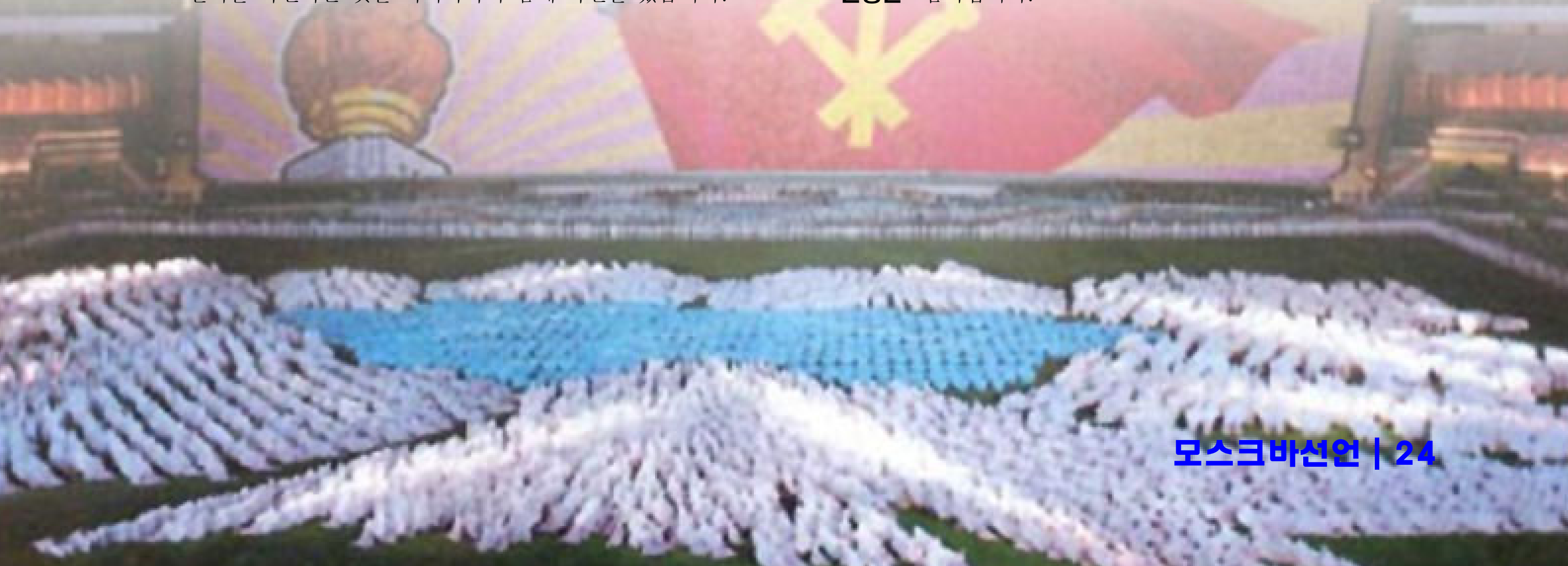
**윤정원** : 네, 영도자님께서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세계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새 세기에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우위와 평등, 상호존중, 호혜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데 관한 문제, 국제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적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러시아측과 합의를 했어요. 또 분쟁문제들을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러시아측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테러와 호륜적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봤어요. 이러한 원칙과 방도가 아태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라 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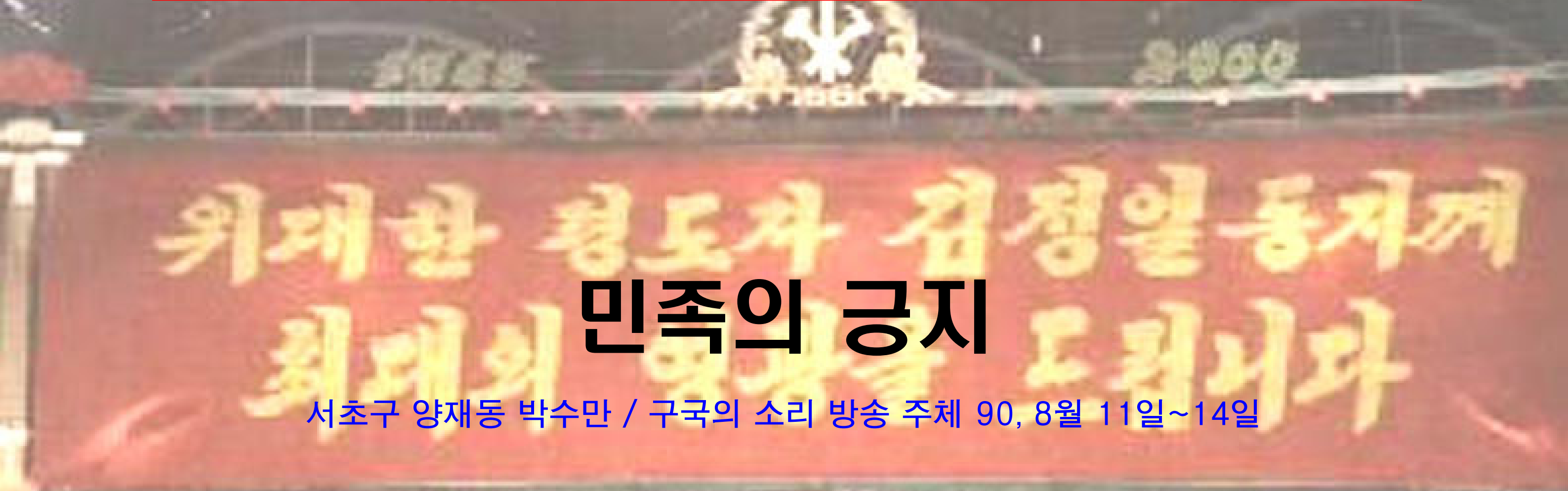
**사회자** :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72년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이 새 세기에도 국제적안정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한다는데 대해서 강조하심으로써 미국이 강행하는 위험천만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된 타격을 주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했다고 봐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세계를 힘으로 제패할 목적으로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광분하고 있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이 추구하는 목적도 범죄적이지만 그것이 군비경쟁을 유발시키고 힘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데로부터 미국의 맹방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효성과 그 이행의 당위성에 대해 천명하심으로써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는 미국에 큰타격을 주었구요,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세계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진보적 인류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세계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며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윤정원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 민족의 긍지

서초구 양재동 박수만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1일~14일

지구촌에는 200여개를 헤아리는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들은 명인제사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인류로부터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받은적 없는 열화와 같은 칭송을 받고 계시는 그런 위인은 알지 못한다.

지금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민중들속에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 금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과 최근 수년간 그분께서 대외활동에서 이룩하신 업적들이 이를 더욱더 현실로 웅변해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달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통해 전세계의 자주화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셨다. 그분께서 주신 이 역사적인 대답은 새 세기에 사변적인 의의를 갖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이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고 진보와 번영,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며 화목하게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그 어느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시미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미국의 무모한 엠디정책강행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무분별한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조일사이에는 관계정상화문제가 의연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때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에 주신 대답에서 이북과 러시아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밝히셨을뿐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문제에 대해서와 이북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자주적입장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셨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일본의 과거청산을 당당히 요구하셨으며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설것이라는 원칙적이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셨다.

그분의 이 선언은 전파를 타고 지구촌에 울려퍼졌고 세계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수많은 나라들의 통신, 방송, 신문, 잡지들이 ≪**김정일**총비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다≫, ≪**김정일**위원장 미사일위협 부정≫, ≪미국정부를 강렬하게 비판≫,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등 제목으로 연일 특필했다. 또 세계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진보적민중은 제국주의자들을 무릎꿇게 한 폭탄선언, 승리의 선언이라면서 그분의 대답을 지지해 연일 기자회견과 담화, 글들을 발표했다.

금번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 이 대답은 그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백두산의 천출명장의 담력과 의지, 배짱으로 쳐갈기신 철의 선언, 자주의 선언이었다. 또 이것이야말로 항일대전의 격전장에서 총포성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고 복잡다단한 20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과 세계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정이였다.

이북을 압살하려고 책동하는 나라들에게 된매를 안기시며 자주적인 대외활동을 영활무쌍하게 폭넓게 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모스크바선언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모스크바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비롯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들에 대한 이북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입장이 명백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 미사일문제,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북의 입장,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문제 등 선언의 조항 하나하나를 봐도 북의 외교적성과를 엿볼수 있게 한다.

모스크바선언이야말로 **김정일**영도자님의 자주외교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념과 배짱, 대담무쌍한 담력과 자주정치의 행보는 자주정치의 거장, 세계평화의 수호자로서의 그분의 위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최근 수년간 세계 정치정세를 한눈에 굽어보시며 **김정일**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은 세계를 격동시켰다. 중국에 대한 두차례의 비공식방문,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대통령과 유럽연합최고위급대표단, 미국무장관접견, 또 그 과정에 이북과 중국과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고 이북과 러시아사이 공동선언채택,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등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것이다. 지금 이북의 대외적지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세인들의 존경과 흠모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격동적인 사변들을 통해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라는 걸 다시금 절감했다.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시고 계시는 걸출한 영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보다 더 긍지높고 위대한 민족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모신 것은 민족의 대행운이고 영광이며 행복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면 조국통일의 새아침도 세계 자주화위업승리의 그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역사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 온 민족의 하나된 조국통일과 더불어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영원할 것이다.

한민전 전위들과 각계애국민중은 인류역사에 큰 자국을 남기시며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커다란 민족적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분을 하루빨리 통일단상에 높이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것이다.



#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 그 의미

기세철 / 구국전선 주체 90, 8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시었다.

21세기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세계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의 역사적 의미는 첫째로, 전통적인 조러친선관계를 21세기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데 있다.

이번에 채택발표된 모스크바선언에는 조러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 등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북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이다. 조러관계는 반제, 반파쇼투쟁과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고발전된 뿌리깊은 친선관계이다.

지난해 7월 평양에서 있은 정상회담과 조러공동선언, 지난해 2월 체결된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전통적인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 놓았다.

이번에 진행된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국민의 근본이익에 걸맞게 상호 호혜와 협조, 번영을 도모하는 데서 획기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조러친선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킨 이북의 외교적 성과는 자주정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펴오신 위대한 영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의 역사적 의미는 둘째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자주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두 나라 정상분들은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여건으로서 러시아측은 이남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이북의 입장에 동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의 하나인 러시아연방이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 부시행정부에 의한 이북고립압살책동과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에 내린 벼락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는 셋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있다.

두 나라 정상분들은 1972년 러미사이에서 체결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이 세계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해 유의하였으며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정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책동은 큰 나라를 누르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며 세계제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이 계획을 내미는 데서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방패막으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엄중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냉전시대의 산물로 묘사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계획을 반대한다고 해도 저들이 당황해할 것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엄중한 도전에 맞서 조러정상분들은 이북의 미사일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이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온 세계에 확언하시었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서 초미의 국제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번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미국의 군사적 팽창야망에 공동으로 맞서 나가려는 조러간의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평화적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의 역사적 의미는 넷째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을 분쇄하고 새 세기의 공정하면서도 호혜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공헌한데 있다.

모스크바선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러양국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우위와 평등, 상호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합의했다.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현존하는 분쟁문제들이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러양국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러사이의 모스크바선언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촉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국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규범, 그 수행방도를 천명했다. 실로 새 세기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는 데서 획기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지금 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21세기를 움직이시는 희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또 한분의 인류의 태양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은 끝이 없다.

이남겨레도 위대한 영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강성부흥할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 자주통일의 길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

김채옥 / 구국전선 주체 90년 9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통하여 자주통일의 길에 빛나는 업적을 쌓으시였다.

영수님께서는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우리 겨레가 나아갈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세워주시었다.

격정과 환희없이는 볼 수 없었던 역사의 그 화폭을 우리 겨레는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보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 러시아방문기간 조러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하시어 자주통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천명하신 것이다.

모스크바선언에는 두 나라 정상이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민중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측은 우리 나라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언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했다.

또한 선언에는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이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것이 천명되었다.

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통일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하기에 장엄한 뇌성마냥 우주공간으로 울려퍼진 조러모스크바선언의 구절구절은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영수님의 빛나는 업적으로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깊이 새겨졌다.

돌이켜 보면 영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며 조국통일문제를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로 여기시었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었다.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존엄과 번영이 있고 나라의 통일이 있다는 것이 **김정일**영수님의 지론이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의를 외래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시는 영수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로 여기시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해 오시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철리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도 역시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치고 영수님의 탁월한 영도력과 무관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수십년간의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신뢰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되어 이산가족상봉, 비전향장기수북송, 남북간의 각종 회담과 교류, 협력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역사적인 장이 펼쳐지게 된 것도 영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번에 영수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기함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제반 여건을 조성한 것은 자주통일의 길에 쌓으신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그분의 영도를 떠나서는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통일운동을 생각할 수 없고 민족대승으로 마무리될 자주통일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세계의 정치원로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24일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지구촌이 러시아방문을 성공리에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끝없는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장 5만여리에 걸치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북러 두 나라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세계정치의 초점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를 외국수반들이 수많이 방문했지만 이번처럼 언론매체들이 광범위하게 보도한적이 없었고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 등 여러나라 수반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어도 외교적테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전의 ******훨씬 초월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으로 언론매체가 들끓었고 지구촌의 연 300여개민중들이 순간순간을 주시했습니다.

이번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이 세계적으로 초점이 되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이북의 정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가 국제관계의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경애하는 그분의 절세위인상을 다시금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도덕의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체현하신 분이심을 절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행기로 짧은 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하실수 있으셨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실때의 노정을 따라 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러시아땅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업적을 역사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뜻이 어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군님께서는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5만여리를 *** 러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우리 민중은 또한 장군님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이심을 절감했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속에서 사회주의를 재건한다는 나라들도 있고 사회주의정당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국가지도자나 수반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레닌묘를 방문하고 화환을 증정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몸소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화환을 증정하셨습니다. 8월 4일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은 오직 **김정일**장군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다시금 인식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의 온갖 반동들에 의해 치욕을 당하던 레닌묘가 구세주를 만난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신 것도 혁명선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최상의 견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의 집중적 반영으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민중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크나큰 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사회주의재건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진보적민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대격란이었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해준 쾌거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에서 우리 민중은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외교지략을 지니고 계시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심을 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은 장군님의 러시아방문기간에 러시아에 ***했는가하면 그분의 러시아방문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꾀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러시아에 가시어 푸틴대통령과 마주앉으신 단 몇시간만에 조러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반동들의 훼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역사의 반동들은 이북에 대한 악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북의 국제적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했지만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으로 해서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외교지략의 마땅한 결과에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탁월한 외교술을 지니신 절세의 정치가, 세계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세계정치를 좌우지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대국입니다.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이북은 정녕 대국이며 **김정일**장군님은 그 대국의 수령이시고 세계의 수령이심을 다시금 입증시켜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이북의 정치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보여주는 일대시위였다고 봅니다.

우리의 각계애국민중은 세계의 정치원로,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 영원불후할 위대한 공적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11일~12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시간엔 그에 대해 애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여름의 찌는 듯한 뙤약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20여일간에 걸친 러시아방문의 5만여리 장정을 단행하시며 불멸의 대외활동을 벌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시간에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와 러시아민중들의 이례적인,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셨어요. 세계의 연 300여억명이 지켜보는 속에서 러시아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첫 공식외국방문은 지구촌을 진감시켰고 우리 민족과 인류사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온 세계적인 쾌거였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비길데 없이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이 온 세상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됐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권위야말로 전설적인 위인만이 지닐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인 겁니다. 정치가의 국제적권위는 대외활동과정에 뚜렷이 나타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는 기간 푸틴대통령과 러시아 민중들은 높은 존경과 친근감, 벅차오르는 신뢰의 정을 갖고 장군님을 가장 열렬히 맞이했고 성의껏 환대했습니다. 장군님을 맞이하는 의식으로부터 **의 행정, 참관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례를 초월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여일간에 걸쳐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시며 이어가신 노정은 말그대로 장군님에 대한 러시아민중들의 존경과 신뢰로 뜨겁게 이어진 5만여리였습니다. 태평양연안의 국경마을 하싼에서부터 서북단 상뜨 뻬쩨르부르크까지 러시아의 전 영토구간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위인환대의 위대한 화폭을 펼쳐주셨습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이번처럼 온 러시아땅이 끓어번진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이 나라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세계는 또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세계를 들었다 놓는 쾌거로 여기며 125개 나라의 TV방송이 연일보도했고 8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지구촌의 연 300여억명이 시청을 한 사실은 **김정일**장군님처럼 명망높으신 위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장거였습니다.

**사회자** : 정말 이번 러시아방문기간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에 관해 우리 겨레가 가슴 뜨겁게 절감한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온 세상이 21세기의 태양으로, 세계정치원로로 끝없이 흠모하고 신뢰하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것이야말로 세기에 세기를 이은 우리 민족의 행운중의 행운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진행하셔서 조러친선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되잖아요.

**김현규** : 온 민족과 인류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조러친선관계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장엄한 화폭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자주화된 새 세기를 건설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신 특기할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지는 건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의 채택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선언은 새 세기의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및 기타분야에서 자주권과 평등, 호혜적협력의 원칙에서 정의로운 새 세기의 구조를 편성할 것을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횡을 견제하며 새 세기에도 조러사이의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력을 가일층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을 밝혔습니다. 선언은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가 된다는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할 목표와 원칙, 그 방향과 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밝히고 있는 모스크바선언은 시대의 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소망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해서 조러친선협력관계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과 인류가 높이 들고 나가야할 위대한 사상, 21세기의 자주선언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힘의 오만성에 사로잡혀 신냉전의 한파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기고 악명높은 미사일방어체제구축기도에 타격을 가한 역사적쾌거였습니다.

**사회자** : 그럼요. 이와같은 사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의 자주위업이 과연 어느 분에 의해 지켜지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자주화된 새 세기의 밝은 미래가 어느 분에 의해 열려지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규** : 외신들도 조러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이북의 외교적승리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룩한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혁명적인 원칙성과 능란한 외교전략, 무비의 담력과 철의 의지가 낳은 자랑찬 결실인겁니다.

**사회자** : 어떻습니까.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천품과 민족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안아오실 확고한 의지가 다시금 과시된 일대 쾌거였다고 할수 있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방문기간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화환을 진정하셨는데요. 레닌묘방문과 화환진정은 전 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를 끝없이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레닌묘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닌묘에 대한 역사의 온갖 반동들의 준동도 우심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화환을 진정하신 것은 혁명선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노동자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발현으로써 그건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에게 베풀어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크나큰 고무라고 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시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세계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가리켜서 세인들이 지구의 모든 관심을 끌어당긴 방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강타를 안긴 방문, 조선민족과 진보적인류에게 활력과 용기를 안겨준 방문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향은 바로 그걸 웅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러시아를 방문하시어 조국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 그리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것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인 겁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시고 위대한 수령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사회자** : 세계를 움직이고 시대를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영수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둘도 없는 행운이고 인류의 크나큰 영광이지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신 행운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조국통일의 새 날을 기필코 앞당기기 위해서 더욱 힘차게 싸워야 할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003년 북미간 최종결전 위한 대미국제포위망, 사실상완성

김명철 / 군사외교평론가



7월26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9일간 풍경을 감상한 후 8월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러시아의 고도 쌍트 페테르브르크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고 8일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귀로에 오른 **김정일**은 8월18일 평양에 귀국했다.

24일간의 2만킬로 기차여행동안 **김정일**은 조선민요와 러시아민요도 불렀지만 항상 인터넷에 접속했다.

**김정일**의 방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중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보도와 외신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2003년 최종 북미결전을 앞두고 북러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관계까지 재구축함으로써 **김정일**이 대미포위망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이번의 방러는 **김정일**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산에 의해 계획, 연출된 고전적인 외교 드라마였다. 1개월 가까이 걸린 이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감독, 연출, 주연은 **김정일**이고 조연은 푸틴이었다. 단역은 러시아군과 치안관계자이고 무대는 광대한 시베리아, 러시아다.

이번 방러는 러시아 국민의 80%, 즉 다섯 명 중 네 명이 구소련 연방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8월16일자 보도)에 이루어져 매우 시기적절한 여행이었다. 록펠러 재단에 의하면, 러시아군수뇌와 러시아정부는 과거 수년간 북한의 대미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한국언론의 취재사진을 보면 러시아각지에서 북한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띈다. 일부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번 방러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당혹해서, 필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흠을 들춰내려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다. 어떤 트집을 잡아도 **김정일**의 방러가 커다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김정일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러시아

러시아는 아무리 국가원수라고 해도,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김정일**에게 파격적인 영접를 했다. 그것은 러시아측이 북한최고지도자를 부시나 클린턴, 유럽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통상적으로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길어야 수일, 보통은 하루나 이틀이고 대부분 항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쪽에서는 경호에 대한 부담이 적다. 항공관제와 수도, 일부의 방문지만 경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김정일**이 시베리아철도로 왕복 2만킬로를 24일간에 걸쳐서, 북한측이 지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횡단한다고 하면, 러시아 쪽의 경비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일**의 러시아방문 일정동안 기차사용을 받아들여, 막대한 수의 경비병과 저격병을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배치하고, 방문하는 곳마다 엄중한 경계체제를 3주 이상의 긴 방문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측이 **김정일**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은 구소비에트 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영접을 나간 사람은 소비에트시대의 국방장관 야조프 원수였다. 야조프는 소비에트연방유지를 기도하다 진압당했던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러시아는 이 야조프를 전면에 세웠다.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고 러시아가 **김정일**을 환대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욱 극적인 것은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연방과 공산당해체 후, 모스크바의 레닌묘를 방문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방문에 최대의 예의를 다했다. 게다가 **김정일**이 머문 곳은 놀랍게도 크렘린궁전이었다.

러시아 국내에서 ≪지나쳤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푸틴이 전례를 깨트려가며 전대미문의 예의로 **김정일**을 맞이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이유이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다.

첫째, 러시아에게 북한보다 더 강력한 대미견제카드는 없다. 푸틴이 아무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도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카드는 못되고, 미국을 특히 부시정권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클린턴과 회담할 때에도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였다. 하물며 일본이나 한국과 경제상의 이유로 관계를 강화해도 러시아의 흥망이 걸려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위망구상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푸틴이 7월에 이탈리아에서 부시와 만났지만 화제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특히 **김정일**을 구소련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형태로 영접할수록 미국은 러시아에 주의를 돌릴 것이며 **김정일**이 머문 3주간 신경을 곤두세워 러시아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대미견제는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 즉 아메리카콤플렉스가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 다시 말하면 북한콤플렉스가 있다. 미국에게 **김정일**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 위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재부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푸틴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일**이 탄 시베리아철도는 달리는 광고탑이 될 것이 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한반도를 잇는 남북의 철도와 연결하는 일은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러시아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뒤떨어진 시베리아개발, 특히 지하자원, 석유, 가스, 삼림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김정일**일행의 24일간에 걸친 철도여행은 그야말로 달리는 광고탑이고, 이것만큼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는 없다. 러시아측이 특별한 광고활동을 안 하더라도 시베리아철도가, 시베리아가 전 세계에 3주일 이상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이상의 선전은 없는 것이다. 푸틴이 시베리아철도를 사용한다해도 이만한 화제는 될 수 없다. 그야말로 **김정일**이니까 화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일부 언론기관은 **김정일**의 방러에 맞춰서 시베리아철도특집을 연재했다.

## 사실상의 북러군사동맹

북러공동선언은 북러관계가 정식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군사동맹 이상으로 밀접한,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대미전략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사동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약에 의한 정식 군사동맹≫이고, 또 하나는 조약은 맺지 않지만 군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한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라도 실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은 현실의 정세를 반영해 대단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북러공동선언 어디에도 군사동맹이나 공동방위라는 말은 없다. 단지 국제연합의 역할강화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정치적 교섭에 의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구축된 군사동맹은 후자에 속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나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러시아 측의 대우는 사실상 북한이 밀접한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북러 공동선언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가 다음의 4가지를 합의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로 된다. 특히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군사동맹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요격미사일금지(ABM)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이고, 양국이 국제안전보장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결의

(2)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평화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게는 위협이 안됨

(3)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
(4) 주한미군문제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상 최우선사항

이것은 북러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 특히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을 탈퇴해서 미사일방위망을 구축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일체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특히 부시정권에 의한 북한의 미사일위협설, 깡패국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야말로,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의 위협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해 7월19일에 평양에서 발표된 양국 지도자에 의한 북러 공동선언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평화적이라는 표현은 작년과 같지만, ≪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를 첨가하고 있다. 지난해 선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협력을 실현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선언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되어 있어 더욱 더 전진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김정일**일행은 장거리로케트제조공장, 최신예전투기제조공장, 전차공장등을 시찰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 새롭게 담겨진 것이 주한미군문제이다. 러시아 주변에는 무수한 미군기지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미군철수는 제기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미군철수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러지도자의 강한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반도는 미군철수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1948년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창건된 이래, 1961년까지 러시아(구소련)과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러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1961년 7월 6일에는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 수립되었지만 다음 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사동맹은 러시아측 특히 푸틴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약에 의한 것보다 더 유효하다.

##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br>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

이번 방러는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명확해 진다.

첫째, 푸틴의 간곡한 방러요청과 군사동맹관계 수립요청. 러시아는 **김정일**의 방러를 거국적이고 파격적인 대우로 환영했다. 소국이나 약소국이 대국인 러시아에게 군사적 의존, 보호, 동맹관계의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대미대결에 있어서 러시아측이 북한에게 밀접한 공동보조와 군사동맹관계수립을 요청했다.

이것은 북러국교수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러시아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동맹관계를 수립, 더 나아가 **김정일**의 방러를 요청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북한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즉 러시아는 미사일방위망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대결에 있어서 북한, 특히 **김정일**과의 군사동맹수립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시정권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타격. ≪북한은 깡패국가≫라는 설, ≪북한의 미사일위협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가결하다는 북러공동선언은 미국측, 특히 부시정권에게는 틀림없는 정치적·외교·군사적 타격이 되었다.

미국에게 ≪북한 깡패국가설≫, ≪북한 미사일위협론≫을 부정당하는 것과 주한미군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것은 엠디계획과 대북강경론이 근원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두 개의 주장은 부시가 러시아에 바라는 요격미사일금지조약 파기의 근거로써, 그것을 러시아



가 완전히 일축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안정돼 있는 정치현실과시. 통상적으로 국가수뇌가 자국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1주일이고 그 이상이 되면 국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이른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치 경제체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 수뇌진이 일주일이상이나 해외에 나가있으면 국정이 혼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측으로부터 침략이나 파괴공작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번 **김정일**의 방러를 지켜본 미국정보기관은 **김정일**이 없는 동안에 특별파괴공작원을 북한에 침입시켜서 체제전복을 꾀할 가능성을 온갖 채널을 통해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시사저널 8월 16일자 보도)

**김정일**은 시베리아풍경을 즐기면서 가끔씩 하차해서는 철도여행을 천천히 만끽했다. 동행한 러시아고관에 의하면 **김정일**은 러시아어가 유창하고 시베리아와 러시아사정에도 정통하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수뇌들은 나라를 3주일 이상이나 비울 여유도 없고, 최고의 사치인 철도여행을 즐기는 일조차 할 수 없다.

철도여행을 하면서도 **김정일**은 기차안에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계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 기차안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서 하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 접속돼 있었다. **김정일**의 해외시찰여행은 끊임없이 발이 땅에 닿아 있다. 유

럽과 미국의 지도자는 국외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는 탓일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견디기 힘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 **김정일**. 이번 방러는 **김정일**이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유례가 드문 정치, 외교, 군사 지도자인 것을 말해 주었다. 러시아의 푸틴은 부시, 클린턴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지도자를 러시아로 초대한 적은 있지만 이 만큼의 대우를 한 적은 없다.

이번 방러는 푸틴이 대미군사외교전략에 있어서 **김정일**을 단순히 대등한 동맹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스승으로서 삼고의 예(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은 고사)를 다해서 맞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김정일** 방러의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프리코흐스키 극동관내 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는 14일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국가지도자인 표트르(황제18세기 러시아 근대화 지도자)에 비할만한 정치가로, 대단히 뛰어난 진보적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번 방러는 21세기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구축하고 미국에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김정일**밖에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슈퍼 김일성인 것이다.

## 조미 결전 최종 라운드 2003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 완성

**김정일**의 방러에 의한 북러군사동맹 재구축은 북미결전 최종 라운드인 2003년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이 사실상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최초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정비할 예정을 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단독으로 2003년 조미 최종전에서 무혈승리를 거두고 만에 하나 전면전쟁, 핵전쟁이 되어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군사 우선정책은 절대적인 효과를 내어 페리보고서를 끌어냈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미 동맹국은 ≪북한은 깡패국가≫라고 떠드는 미정부의 북한고립화 정책과 결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서방국가는 부시정권의 대북한 강경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작년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정일**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13일~15일, 마침내 평양에서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고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나와 남북의 자주적 통일이 합의됐다. **김정일**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수뇌와 북중군사동맹이라는 피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했다.

올 9월에는 장쩌민주석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용군 조선전쟁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통적 북중 동맹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네 차례의 북미군사대결이 있었다. 1968년 스파이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EC-121 정탐기격추사건, 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1993년~94년 핵 대결. 그 때마다 어느 나라도 북한에 지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단독으로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 임해 전면전쟁, 핵전쟁을 불사하는 강경책을 폈다. 결국 그 때마다 미국이 물러났고 북한은 무혈승리를 달성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단독대결이 북한경제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국제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북한은 대미대결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단독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 올리면서 국제적인 대미포위망도 완성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부시정권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북미 대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극적으로 유리해진 상황 속에 **김정일**은 제네바 핵합의 최종기한인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까지 약속한 경수로 2기를 북한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정부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수로공사를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미 미국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를 해도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2003년이 되면 부시정권은 세계의 면전에서 북한으로부터 격렬히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포기하고 동결돼 있던 핵 발전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재개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은 두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유인우주비행실험까지 할 가능성마저 있다. 2003년 제네바합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부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네바합의를 아예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실험을 묵인한다.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이 용인할 수 없고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해지고 일본 국내에는 반미기운이 높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공공연히 혹은 비밀로 핵무장을 결단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핵무장을 결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확산이 야기되고, 반면 핵무기로 세계를 재패했던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굴러 떨어져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악몽의 사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을 상대로 선제군사공격을 한다.

이는 북한과 전면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네바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키기에는 국제적으로 대의명분이 없다. 미국은 대의명분이 없어도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나라인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나 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전멸뿐 아니라, 미군의 대북한 군사행동에 협력하는 나라들이 보복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본토 특히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이 북한 미사일에 의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지원이 없더라도 북한은 단독으로 미국과 핵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보다 북한이 핵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본토 도심은 핵공격에 대한 방위체제가 일체 없다. 초보적인 엠디체제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그것도 2004년 이후가 된다.

또 미국의 대북한군사행동을 유럽,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세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선택도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위에 말한 두 가지의 선택으로는 부시의 재선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다.

부시진영은 이미 재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걸프전쟁으로 부친도 재선하지 못했다. 개구리의 자식은 개구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

반침하 혹은 본토가 불타오르는 것이 현실이 된다.

세 번째,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나라라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간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에 저항하는 상대, 특히 강렬한 반격, 보복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정치적인 해결을 선택한다.

이 경우 미국이 받아들일 것은 북미적대관계의 해소, 즉 북미평화협상조인, 주한미군철수, 북미국교수립, 제재조치의 전면해소, 테러국가리스트에서 북한해제,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지출이 요구된다.

이런 조치는 의회의 승인, 비승인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확산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잔류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부시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부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켰다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재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부시에게는 이것 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만일 부시가 북한과 군사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군사적 대결은 **김정일**이, 북한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다. **김정일**은 항일무장전쟁의 전화속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는 맹렬한 화염 속에서 성장했고, 그 후 미국과의 군사대결 속에서 세계 초일급의 군사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 군사력 강화, 경제재생의 순풍

이번 방문으로 북러양국은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합의했으나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특히 경제재생의 순풍이 될 것이다. 북러공동선언에서 러시아는 양국간에 건설한 산업시설, 특히 전력시설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원래 북한의 산업시설은 러시아기술에 의한 것이 많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공급시스템의 중핵은 평양화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이다. 이 두 곳은 제1차 7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위기 이후 러시아는 협력을 중단하고 부품 등의 공급을 거부했다.

유럽 등으로부터 상품조달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규격이 맞지 않고, 맞는 경우에도 조건이 붙어 매우 비쌌다. 하지만 북러합의 이후 커다란 자본도입 없이도 러시아로부터 일부부품 등의 공급이 재개된다면 북한전력사정은 크게 호전된다. 전력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북한 경제는 재생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또 그 밖의 생산시설이나 공장도 가동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없어도 이미 북한 경제는 부활기조에 있고 몇 년 안에 극적인 재생을 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순풍이 불어 북한의 경제재건은 가속화될 것이다.

군사분야도 마찬가지다. 전투기 등은 대부분이 러시아제인 데다가 부품부족, 연료부족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북러회담은 이것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로 본다면 북한과의 경제, 군사분야 협력이 별 것 아니지만,대미 전략상 이것만큼 유효한 대책은 없다. 다시 말해 러시아 자신이 병력이나 군비를 확대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러시아 자신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 보다 수백배의 군사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후 수년 사이에 북한경제는 완전히 재건되고 부활해, 1인당 국민소득도 1991년의 2500달러 수준으로 돌아간다. 10년 내에는 8천달러 이상으로도 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또 1만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유럽과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순풍이 된다. △2003년까지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된다 △여분의 국방비는 전부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다 △북미적대관계 해소에 의해 해외로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석유개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본격화되어 북한은 산유국이 된다 △이후 5년 이내에 남북이 연방제를 달성한다.

만일 북한이 산유국으로 떠오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3만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도 자신 편으로 만들어 미국을 무혈무력화시켜 남북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북한의 경제도, 국민 생활도 극적으로 향상될 때이다.

이번 방러 24일간은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에 대비한 대미포위망완성을 의미한다. 이후 2년 4개월 이내에 북미교섭은 평화적으로 일괄타결될 것이다. 미국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남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도에 의해 연방제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통일의 최대의 장애였던 미군, 미국이라는 요인이 무력화될 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된다. 미국이 무력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북한은 쉽게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다. 몇 년 이내에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인 것이다.

# 세계자주화위업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

## 각계인사들의 반향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9일)

전국연합소속 통일운동단체 김모인사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조러모스크바선언을 지지환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 신냉전세대를 형성하기 위해 광분하는 엄혹한 시기에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것은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패권주의와 군비경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획기적인 국면을 마련하신 역사적 쾌거로 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마련하시어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통일에로 역전시키셔서 세계를 격동케하시더니 올해에는 조러정상회담을 진행하시어 또다시 세계정국을 바로잡으시니 그분이시야말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21세기를 향도하시는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자긍심으로 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

(구국의 소리 방송뉴스 / 주체 90년 8월 11일)

국제문제연구소의 최모연구원이 지난 8일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세계 자주화위업의 탁월한 영수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공식방문은 세계 정치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인하신 모스크바선언에서 그분의 특출한 반제자주의지를 다시금 폐부에 새길수 있었다.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자주화위업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크나큰 자신감과 용기를 주며 새 세기 인류가 가야할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위대한 영수, 세계정치사의 대원로이시다. 참말로 조선민족된 자긍심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통일된 강성부흥국에서 세계 자주화위업의 선도자로 빛을 뿌릴 것이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2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의 이모씨는 이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조러공동선언의 발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발광하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반미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에게 활력을 준 역사적 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러공동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의사회구현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밝혀주셨다. 특히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이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주한미군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그 철수투쟁에 광범위하게 나서게 하고 있다.

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의 영수로 높이 모시고 자주통일의 암인 주한미군의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겠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4일)

서울의 한 통일운동가모임이 9일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 러시아방문 그 의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조명해본다≫ 등의 논제를 갖고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일치하게 **김정일**영도자님의 금번 러시아방문은



# 조러모스크바선언

현시대 지구촌의 평화실현의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 쾌거로 된다고 하면서 그분을 세계평화의 위대한 수호자로 높이 평가하고 절세의 위인을 모셔 민족의 존엄이 빛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들은 또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초미의 문제들을 온 세상에 다시금 천명하시어 민족통일의 앞길에 밝은 서광이 비쳐지게 됐다며 그분을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5일)

각계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역사적인 사변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온 강모씨는 옛 동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고 모스크바선언에서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감축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시어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미국에 호된 타격을 가하시었다.

사실 지구촌의 대다수 나라들이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백두산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미국에 대해 이런 폭탄선언을 하셨다. 세계가 그분을 끝없이 존경하고 더없이 우러러 보는 것은 당연하다. 21세기가 **김정일**장군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7일)

서울 모신문사 기자 정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계시는 그분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과시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가 앞을 다투어 이북과 국교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써의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푸틴대통령이 영도자님을 최대국빈으로 극진히 환대한 것은 물론 외교관례를 깨고 일정에도 없는 수뇌 비공식회담을 마련한 것은 영도자님의 국제적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하는 것을 그대로 실감케 한다. 더욱이 북러공동선언에서 21세기 세계평화와 안전의 이정표로 될 국제문제해결의 원칙들을 천명하신 것은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영도자님의 정치력의 과시로 된다.

정말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한 일대사변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다.≫



# 6.15공동선언실현의 지름길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선언

## 각계인사들의 반향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7일)

언론인 이모씨는 모스크바선언은 읽어볼수록 큰뜻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수만리의 노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충정에 머리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모스크바선언은 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조국통일은 멀지않아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9일)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과 모스크바선언은 탁월한 정치가로써의 영도자님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남북정상회담과정과 6.15공동선언발표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영도자님의 외교술, 협상술은 신비하리만치 특출하다. 이번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염원을 실현하고 지배와 예속이 없고 전쟁이 없는 자주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세우시려는 영도자님의 숭고한 경륜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한번의 역사적인 외국방문으로 이북을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대국으로 더욱 우뚝 세우셨다. 한미정상회담때 당국의 굴욕적 자세로 비감과 분노를 누를길 없었는데 이번에 그 한을 풀었다.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을 보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맛보았다. 영도자님께서 통일조국을 이끄셔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만 진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2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의 이모씨는 이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조러공동선언의 발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발광하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반미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에게 활력을 준 역사적 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러공동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의사회구현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밝혀주셨다. 특히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이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주한미군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그 철수투쟁에 광범위하게 나서게 하고 있다.

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의 영수로 높이 모시고 자주통일의 암인 주한미군의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겠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5일)

한양대학교의 최모교수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은 투철한 통일의지와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영장이시라고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번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은 통일을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우리 민중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제군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은 심히 정체되고 있다. 경향의 민심은 난국타개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다시금 확신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선 모스크바선언에서 6.15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시려는 불변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셨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는데 대해 확언하신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셨다. 모스크바선언은 6.15공동선언실현의 지름길을 가리키고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투철한 통일의지와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영장이시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7일)

서울 모신문사 기자 정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계시는 그분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과시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가 앞을 다투어 이북과 국교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써의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푸틴대통령이 영도자님을 최대국빈으로 극진히 환대한 것은 물론 외교관례를 깨고 일정에도 없는 수뇌 비공식회담을 마련한 것은 영도자님의 국제적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하는 것을 그대로 실감케 한다. 더욱이 북러공동선언에서 21세기 세계평화와 안전의 이정표로 될 국제문제해결의 원칙들을 천명하신 것은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영도자님의 정치력의 과시로 된다.

정말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한 일대사변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다.≫

# 자주외교의 화신, 민족존엄의 상징

## 각계인사들의 반향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소식에 접한 각계각층 민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김모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고 모스크바선언을 마련하시는 등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하시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신 소식에 접하고 흥분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정책을 저지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들으면서 그 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를 이끄실 위대한 정치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인이시라는 것을 또다시 느꼈다. 정말 민족적 자긍심을 금할수 없다. ≫

(구국의 소리 방송뉴스 / 주체 90년 8월 11일)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는 신모씨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절세위인을 모셔야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새기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국 러시아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의 국빈으로 환대하고 러시아 각계의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그분께 지성어린 진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민족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진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장군님을 존경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분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선군정치에 탄복했기 때문이다. 오늘 자주를 원하고 강성부흥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다 장군님의 정치를 선망하고 있다. 그래서 저마다 장군님을 찾아뵈오려 평양을 찾고 자기 나라에 수속을 하고 있다. 위인의 존엄이자 자기 민족의 존엄이자. 나도 장군님의 외교관이 되어 당당한 자주외교를 펴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4일)

서울 외국어대학교의 김모교수가 경애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자주외교의 화신으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조러모스크바선언 소식에 접하고 난 그는 동료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한 경의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선 단한번의 러시아방문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반도의 역학관계와 정세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시였다.

인류외교사가 흘러 수천년에 이르지만 언제 이런 일이 있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신묘하고 비범무쌍한 외교술로 세계정치흐름을 관장하시고 조국통일을 주도해나가시는 자주외교의 화신이시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7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소속 회원 현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한마디로 말해 자주국의 존엄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였다. 모스크바선언의 조목조목을 보라. 세계 유일초대국 행세를 하는 미국을 향해 제할 소리를 다하고 6.15공동선언이행과 주한미군철수사항을 당당히 밝혀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사대가 체질화된 이땅에선 꿈조차 꿀수 없는 희한한 사변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 온누리에 빛을 뿌리는 민족존엄의 상징이시다. ≫



# 로씨야의 날씨를 문의하여 매일 평균 2만여건의 전화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넘쳐 나고 있는 조선의 방방곡곡에 감동적인 사실들이 수많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 진 지난 7월 26일부터 인민들은 기상관측기관들에 그 나라의 기상상태를 알아 보는 전화들을 끊임없이 걸어 오고 있다.

이른 새벽에도 한낮에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때없이 걸려 오는 전화의 수화기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중앙기관 일군들, 전국 각지의 각급 기관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조선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 등 남녀로소의 절절한 념원이 담긴 목소리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시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소식이 전해 진 지난 4일 밤부터 전화회수는 급격히 많아 졌는데 5일과 6일, 7일에 기상수문국과 각지의 기상관측소들에서 받은 전화를 종합하면 그 회수는 매일 평균 2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걸어 오는 전화들에 그이의 안녕을 바라고 바라는 마음들이 뜨겁게 어리여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방문하시는 로씨야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비가 몇차례나 억수로 쏟아 졌는데 로씨야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날씨는 무더운데 그 나라의 기온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 보는 전화들은 해당 기관 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과 그 나라의 시간차이까지 계산해 보면서 비구름상태들을 깐깐히 알아 보고 있다. 그리고 기온이 30이상을 기록한 어느 날에는 나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장군님께서 방문하시는 로씨야는 우리 나라보다 더 덥습니까? 비도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라고 물어 왔다고 한다.

지방의 기상관측소들에도 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많아 진다고 기상수문국에 알려 오고 있다.

기상수문국 일군들이 전하는데 의하면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은 그저 어느 기관에서 일한다, 군인이다, 밖에서 비가 내리는것을 보니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전화를 한다, 공중전화소인데 출장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이나 주소, 직위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상수문국 고일훈국장은 ≪기상관측기관들은 원래 대기상태와 그 변화과정을 특징 짓는 기압, 온도, 누기, 바람, 비, 구름, 눈, 서리, 이슬, 해쪼임 등 기상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여 그 자료들을 발표하거나 보관하여 둠으로써 많은 경우 나라의 경제건설에 이바지 하는것으로 인정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 졌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맑은 하늘을 펼쳐 드리고 싶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기상관측기관들에 쏠리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의 표시이다.≫라고 감동깊이 말하였다.



# 김정일총비서 로씨야방문에 대한 조선 간부들의 반향

(평양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소식에 접한 지금 조선인민의 가슴은 끝 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다.

교육상 변영립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로씨야방문은 조로친선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위한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로모스크바선언에도 지적된바와 같이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최고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로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력사적인 리정표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량만길은 온 평양시가 비길데 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시민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끝 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 로씨야방문에서 이룩하신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외무성 부상 궁석웅은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로공동선언과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정신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말하였다.

# 온 나라가 김정일장군님께서 안녕히 돌아 오시기만을 기다린다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대외활동보도에 접한 조선은 지금 끝 없는 환희에 휩싸여 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그이께서 새겨 가시는 거룩한 자욱자욱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기 수령, 자기 지도자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는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심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요즘 더욱 강렬하게 발현되고 있다.

남녀로소 누구나 다 세계지도앞에서 광활한 로씨야의 지점을 짚어 가며 그이의 자욱에 보폭을 맞추고 마음과 마음들을 따라 세우고 있다.

-그이께서 돌아 오시는 그날에 드릴 충성의 보고를 마련하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기적과 혁신으로 실적의 꽃바구니를 엮어 드리자!

이것은 조선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울려 나오는 소박한 인민들의 꾸밈 없는 목소리들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날과 날을 수 놓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위훈을 창조해 가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전선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들과 철도운수부문이 여느 때없이 들끓고 각 부문 근로자들이 그들과 숨결을 같이 하고 있다.

여러해동안 지속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게다가 최근 또다시 1,000년래 가물뒤에 따른 무더기비가 쏟아 져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들이 물속에 잠기고 수만정보의 농경지와 수천세대의 살림집, 공공건물들이 침수 및 파괴되였다.

하지만 인민들은 견인불발하여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선인민은 오직 한마음 **김정일**장군님께서 외국방문의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안녕히 돌아 오시기만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다.



# 세계적판도에서 파문 일으키는 로씨야방문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은 지금 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로씨야 **김정일**주의연구쎈터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소식을 끝 없는 환희속에 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을 진행하시는것은 우리 쎈터성원들과 전체 로씨야인민에게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모스크바에 계시는동안 멀리에서 나마 그이를 뵈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조선의 일군들이 그이를 더 잘 받들어 주기를 바란다.

말레이시아신문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에 도착하시여 붉은광장에 있는 쏘베트국가의 창건자인 레닌묘를 방문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레닌의 묘를 방문하심으로써 공산주의적도덕의리의 숭고한 풍모를 보여 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또한 그이께서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쎈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를 참관하신데 대하여 전하면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시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력사적인 사변을 마련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주체사상연구협회 부위원장은 지금 우크라이나사람들은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조로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하신것은 미국에 핵미싸일을 쏜것과 같다고 하면서 그이의 외교지략에 경탄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기네통신사 책임주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은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시기 렬강들의 희생물로 되였던 조선이 오늘 대국들과 같은 지위에서 독자적인 조선식외교활동을 벌려 대외관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비범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결과이다.

이란신문 ≪알 와파크≫ 5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와 로씨야련방 대통령각하께서 회담을 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각하의 이번 방문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의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며 모스크바선언은 두 나라의 미래를 지향한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오만신문 ≪오만≫ 5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와 로씨야련방 대통령각하께서 조로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언에서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북조선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로씨야측은 이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조선과 로씨야의 령도자들께서는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확인하시였다.

로므니아신문 ≪꾸리에르 나찌오날≫은 **김정일**령도자께서와 뿌찐대통령께서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관련한 부쉬의 론거를 무력하게 만드시였다고 지적하였다.



# 로씨야방문은 세계자주화위업승리의 리정표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신것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마다가스까르투쟁련합당 총비서 란드리암바우 마후바 자까쑤아 막쓰 할바리는 **김정일**각하의 이번 로씨야련방 공식방문과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으며 조선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겐나지 쥬가노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에 조선과 로씨야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실현하는것은 두 나라사이의 전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스트리아공화국 전 사법상인 한스 클레카츠키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 방문에서 조로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하신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민족국가들의 자주성을 옹호해 나가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되는 세계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벨리제국적선박 갸로얄 스타 70갸호 선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심으로써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하여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안드리아벨루난드루 안쎌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성과는 조로친선관계발전과 정의로운 국제관계수립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수행,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 준 뜻 깊은 방문이였다.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일**동지의 모스크바방문성과를 통하여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풍모를 따라 배우는 선각자로서의 기쁨과 영예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있다.



# 로씨야방문에 대한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고위인사들의 반향

(평양 8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방문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고위인사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뻬루공산당(붉은 조국)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전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고 하면서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그이께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격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로씨야대통령 뿌찐과 상봉하시고 중요한 합의들을 보시였다, 우리는 ≪세계화≫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그이의 이번 방문을 세계를 진보와 발전에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은 력사적인 방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이번 방문은 그이께서 로씨야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로씨야사람들은 **김정일**동지께서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사실을 놓고 그이는 신념이 투철하신 정치가이시며 언제나 자신의 립장을 끝까지 관철하시는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이아나민족대회당 지도자는 담화에서 **김정일**각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신것은 세계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력사적 전환점으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불안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주의, 강권정치를 반대하여 투쟁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정일**각하를 21세기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세계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여 주실것을 열렬히 바라고 있다.

그이의 이번 로씨야방문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미제가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조선을 감히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 주었다, 미제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무한대한 실력과 재능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반제투쟁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준 획기적사변으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기네통일진보당 녀성전국련합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대국과 령활한 외교활동을 벌리시였다.

하기에 세계 보도계는 그이의 로씨야방문소식을 특별프로로 련일 보도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이번 로씨야방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 졌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정일**각하의 이번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위인적풍모와 높으신 국제적권위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 온 세계를 진감시킨 역사적 사변

구국전선 주체 90년 9월 1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은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페루민족회복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각하의 러시아방문은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정치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변으로 된다. 나는 러시아연방공식방문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김정일**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페루사회당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 러시아를 공식방문하신 소식은 온 세계를 또한번 들었다 놓았다. 페루국민을 비롯하여 세계진보적 인류는 이북의 **김정일**각하를 세계정치의 위대한 영도자로 더욱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다.

나는 **김정일**영도자의 러시아방문이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기니대통령부 외무 및 협조성 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TV를 통하여 **김정일**각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시청하면서 이북이 대국들과 같은 지위에서 당당하게 대외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는 데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최근 서방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가면서 이북과 대외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북의 대외적 권위는 비할바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이다.

말라가시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북의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 지난해 평양에서 있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과의 상봉에 이어 이번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시고 푸틴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었으며 그 결과로 조러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되었다.

새 세기의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북러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 그리고 선언의 발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변이다.

지금 세계는 **김정일**영도자의 모스크바방문의 의의를 강조하고 방문성과를 축하하고 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일**영도자께서 진행하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이 세계정치정세발전에 미치고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목격하면서 이북의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하며 그 위용을 떨치리라는 것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불가리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러모스크바선언은 세계가 위대한 자주정치를 따라 나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증명해 주고있다.

세계정치원로이신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높으신 국제적 권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계신다.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자기의 활력과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이북민중 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

이짚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야흐야 쟈카리야 헤이틀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1세기 첫해에 진행된 **김정일**영도자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은 전통적인 북러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정부와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다.

특히 **김정일**영도자께서 러시아대통령과 회담을 하시고 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하신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이정표로 된다. 그분의 러시아방문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수많은 나라 국민들을 크게 고무해 주고 있다.

모스크바선언에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김정일**영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그분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김정일**영도자이시야 말로 조선의 통일과정을 주도해 나가시는 조선민족의 영수, 국제외교의 중심에 확고히 서계시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심을 전세계가 절감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일본**김일성**주의연구회 회장 에비사와 야스히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일**영도자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것은 세계평화위업, 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것으로 된다.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공고한 평화이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나라들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미국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전통적인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 세울 뿐아니라 지배주의를 하는 나라들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된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그분께서는 이번에 이북과 러시아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자주의 원칙에서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시었을 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을 가일층 촉진시키시었다.

그분의 러시아방문은 이북민중을 고립압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미행정부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승리적인 방문이다.

우리는 주체위업의 향도자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